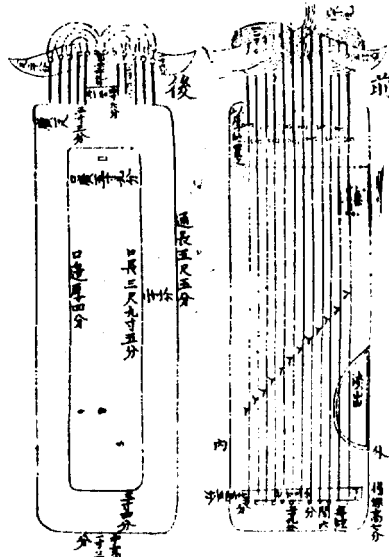


新羅琴(伽耶琴)의 生成*

林 謙 三
黃 俊 淵 譯

오늘날 韓國에는 古代의 民族的 絃樂器의 하나로서 伽耶琴이 남아 있다. 이 樂器는 新羅 이래의 傳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그 연원은 漢代의 箏에 두고 있으며, 箏에서 分化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古代의 日本에 전해진 樂器로서 新羅琴(시라기고도)이라는 이름으로 平安前期까지 使用된 것이 日本의 正倉院에 있는데, 이것은 古遺物三張(北倉 2, 南倉 1)으로 오늘날에도 保存되고 있다. 以下 이 樂器의 起源등에 관하여 생각한 것을 적어본 것이다.

오늘날 韓國에서 사용되고 있는 伽耶琴에는 新古의 두가지 型이 있다. 古型은 正倉院의 新羅琴이나 樂學軌範 所載의 글⁽¹⁾과 그림(그림 1)에 거의 一致되는 것으로, 槽(통)는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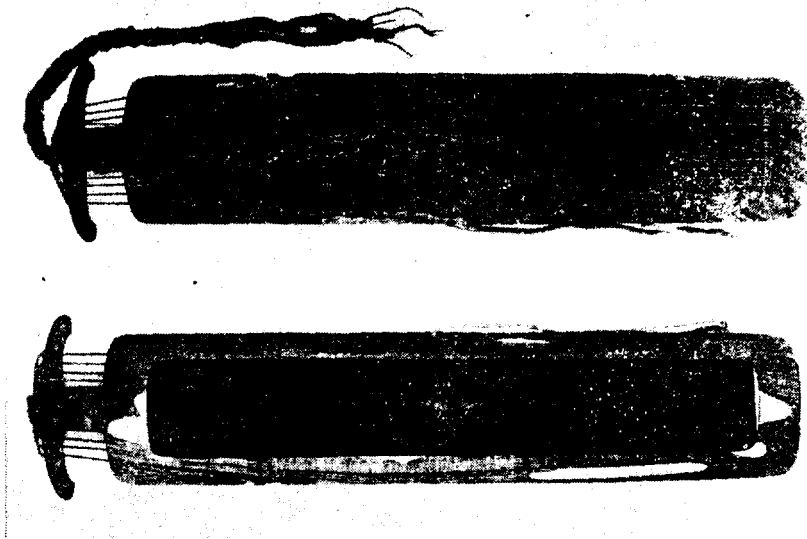


<그림 1> 伽耶琴(樂學軌範)

* 이 글은 林謙三의 「東アジア樂器考」(カワイ樂譜, 1973) pp.180-187에 있음.

(1) 「樂學軌範」(七)에 말하기를 「상고하건대, 伽耶琴을 만드는 法制는 오동나무로 만들고 粧飾本과 부들(染尾)는 玄琴의 그것과 같다. 대개 粧飾들은 아교를 써서 붙이지 않는다. 羊耳頭는 그것을 꼬리 끝에 꽂는다. 擔樑(현침)는 줄끝에 받쳐있다. 전부 十二絃인데, 武絃이 조금 굵고 五短音(絃名)에 이룰수록 점점 가늘어지고 柱(안축)도 또한 점점 낮아진다」 染尾는 羊耳形에 감아부치는 줄이고, 擔樑는 머리부분의 臨岳을 가르킨다.

의 통나무를 파서 만들고, 뒷판은 없으며, 槽의 말단에는 羊耳狀의 緒留(줄 매는곳)를 가진 점이 特色이라 하겠다. 新型은 箏과 같이 뒷판을 가지고 있으며, 古型에서 보던 것과 같은 羊耳狀의 緒留는 板의 모양에서 退化하여 옛모습을 크게 잃어버린 느낌이 있다. 그러나 絃數는 新型이나 古型, 또 正倉院의 遺品이 모두 12絃으로서, 이것은 옛날의 傳統을 굳게 고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正倉院의 것과 古型과의 약간의 差異를 든다면, 羊耳狀의 모습과 懸緒의 有無라 할 것이다. 前者(正倉院藏)의 羊耳狀은 좌우의 끝이 槽의 방향으로 휘었고, 또 槽의 한쪽에 懸緒가 붙어있는데, 이에 對하여 後者의 羊耳狀은 좌우의 끝이 槽의 반대 방향을 향하고 있으며, 槽에는 懸緒가 없다. 이와 같은 약간의 差異를 무시한다면, 千年의 간격을 가진 古代의 遺物과今日の 古型과는 完全히 同型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림 2> 新羅琴(正倉院)

正倉院의 遺物(그림 2)은 槽를 오등나무로, 羊耳頭와 枕(龍角)은 단단한 나무를 써서 만들어 졌다. 北倉의 한틀(一張)은 金泥로써, 또다른 한틀은 金箔을 써서 槽의 全面——內部까지——에 草花文을 그려 놓았다. (南倉의 한틀은 損傷이 심하여 繪畫의 장식이 보이지 않는다.) 이 가운데 北倉의 두틀은 天平勝寶 8歲(000 A.D.)의 「獻物帳」에 記載된 金鏤新羅琴 二張을 弘仁 14年(서기 823년) 2月 19日에 出藏한*代納品으로서 同年 4月 14日에 收納한 것인데, 그에 관해서는 「雜物出入帳」에 기록되어 있다.

新羅琴은 「和名抄」注에

新羅琴. 和名之良岐古止(시라기고도). 出所는 未詳. 추측컨대 新羅國에서 온것인가. 12絃이 있고, 그 이름은 甲乙丙丁戊己庚辛壬癸天地. 譜에 보인다.

라고 있어서, 正倉院 遺物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단순히 絃數에서 一致될 뿐만아니라, 韓國의 伽耶琴도, 伽耶는 그 起源地의 명칭일뿐, 결국 新羅에서 쓰인 琴이라는 것이 분명하므로 의심의 餘地가 없다. 따라서 이 遺物이 收藏된 해의 14年 以前인 大同四年(서기 809년)의 改制雅樂寮樂師에 의하여 「類聚國史」에

新羅樂師二人, 琴舞等師也.

라고 있는데 그 중 一人은 新羅琴의 樂師가 아닐수 없고, 또한, 다시 그로부터 百餘年 以前에 制定한 大寶(서기 701년~703년)의 「職員令」의 雅樂寮 中에

新羅樂師四人 樂生二十人

라고 하는 글가운데에도 틀림없이 이 樂器를 使用한 樂師와 樂生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樂器를 한국의 三國史記에 記錄된 것이나, 오늘날 불려지는 것처럼, 伽耶琴이라고 하지않고, 日本에서는 新羅琴이라고 말하는 것은, 堅箏篥를 百濟琴(구다라 고도)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이 日本의 新羅樂에서는 主要樂器로서 쓰였을 것이다. 그 起源에 있어서는 「三國史記」(卷 33)에 이르기를

伽耶琴도 또한 中國의 箏을 본떠서 만들었다.……伽耶琴은 箏과 制度가 조금 다르지만, 대개는 같다. 新羅古記에 말하기를 伽耶國의 嘉實王이 唐의 樂器를 보고서 이것을 만들었다. 王은 이르기를 諸國의 方言이 各各 다르거늘, 어찌 聲音이 같을수 있겠는가 하고, 樂師 省熱縣사람 于勒에 命하여 十二曲을 만들게 하였다. 그 후 于勒은 그 나라가 장차 어지러워질 것을 알고, 樂器를 들고서, 新羅의 眞興王에게 投降하였고, 王은 그를 받아들여서 國原에 편히 살게 하였다.(下略)

이 글에 의하면, 伽耶 즉 任那의 嘉實王이 中國의 箏을 모방하여 만든것이 任那가 滅亡할 때, 新羅에 傳해졌다는 說임을 알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創造傳說도 있지만, 中國 六朝時代의 箏(淸樂箏)과 伽耶琴, 즉 新羅琴과의 사이에는, 構造上에 있어서 적어도 다음 두가지와 같은 현격한 差異가 있다.

- 一. 新羅琴은 桐一木을 써서 槽(울림통)를 만들었고, 여기에는 뒷판을 붙이지 않지만, 箏은 別途로 뒷판을 붙인다.
- 二. 新羅琴에는 羊耳狀의 緒留가 있지만, 箏에는 그러한 것이 一切 不必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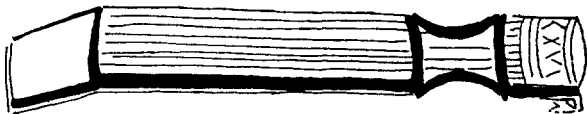
(2) 「東大寺獻物帳」에 말하기를 「金鏤新羅琴一張枕尾並染木」 「金鏤新羅琴一張枕尾並桐木」 枕尾라云云 枕尾라云云
는 것은 龍角과 羊耳狀木을 일컫는 것과 같다.

그대신에 類似點으로서, 두 樂器가 共히 12絃을 쓴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箏이 新羅琴으로 移行되려면, 絃의 制이외에는 상당한 飛躍이 있게되므로, 이 두 樂器를 關係지으려면, 中間的인 무슨 樂器가 있지않으면 안될 것이다.

上記한 「三國史記」가 引用하는 바의 「新羅古記」의 說을 어느정도 믿어준다면, 新羅琴은 六朝末期에 發生했고, 中國의 같은 種類의 樂器에 比較해 보면 어느정도 새로운 것이 된다. 箏은 戰國末頃부터 알려졌는데, 처음에 五絃에서부터 점점 그 絃數를 더하여, 魏晉代에는 12絃으로 고정된 것이다. 그 典據는 魏의 阮瑀, 晉의 傅玄, 賈彬등의 各各의 「箏賦」에서, 箏의 絃數 12를, 혹은 四時의 法度에, 혹은 12월에 비유하여 말하고 있다. 또는 漢의 京房이 樂律研究에 기록한 準(琴箏종류의 악기)이 13絃이라는 點에서——唐代的 俗樂箏은 十三絃이다—— 이것을 箏이라고 보고, 漢代에 있어서 十三絃箏이 있었다고 하는 說에는 나는 贊成할 수 없다. 後魏의 信都芳 「樂書」에는 箏類의 箏을 13絃이라고 말하고, 「隋書」音樂志에 箏十三絃이 있는점에 의하여 六朝末의 箏에 十三絃의 것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고로, 任那의 嘉實王代라면, 中國에는 十三絃의 箏도 多分히 發生되었었고 그것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됨에도 불구하고, 新羅琴이 十二絃인 것은 絃制에 있어서는 魏晉系의 十二絃箏과 어떠한 關係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絃數의 起源은 以上の 事實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지적한것 처럼, 箏과의 根本的인 形態의 相違點 두가지에 대하여는, 그 起源을 어디에서 구해야 될 것인가. 유감스럽게도, 瑟의 모습을 한 箏類에 있어서, 뒷판을 갖지 않은 것이 漢唐間에 쓰였다고 하는 明確한 記錄을, 오늘날 찾을 수가 없다. 箏의 種類라고 하면, 뒷판이 必須라고 생각되어 지는데, 新羅琴만이, 유독 그槽에 대하여는 기원이 不明이지만, 瑟모양으로 변하기 以前의 古式의 箏箏의 槽가 대나무와 關係가 있는바로서, 丸竹을 세로로 半分하여 槽로 삼은, 이를테면 半管形의 지터(Halbröhrenzither)⁽³⁾모양의 옛 箏箏의 遺制를 新羅琴이 保傳하는 것이나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된다.

다음으로, 羊耳狀의 緒留도 그 由來가 未詳이다. 나는 전에, 箏類에 細項을 말하는 중에



<그림 3> 箏(樂書)

(3) Sachs, C., Die Musikinstrumente Indiens und Indonesiens, zugleich eine Einführung in die Instrumetenkunde, 1923, S. 102.

筑(그림 3)⁽⁴⁾과 이 羊耳狀을 가지고 新羅琴과의 사이에 무엇인가 生起的인 관계가 있지는 않을까 하고 생각해본 일이 있다. 箏類의 頭는 奏者의 오른손편에 있으므로, 大頭細項이 같은 奏者의 右手쪽에 있다고 한다면, 新羅琴의 羊耳狀의 位置와는 正反對에 있게 되지만, 一說에 筑의 細項을 손에 把持하려면, 大頭細項은 오히려 왼손편에 올수밖에 없다고 하므로, 新羅琴의 羊耳狀의 位置와 비슷해 진다. 이와같은 點을 억지로 關係지우는 것은 피해야 될 것이지만, 여기에 古史籍가운데 하나 看過할 수 없는 記事가 있다. 「新羅古記」의 說과는 別途로, 韓半島에는 아주 옛날부터 箏類가 있었다는 것에 대하여, 「魏志」는 三韓條에, 辰韓의 風俗을 叙述하기를

風俗에는 歌舞와 飲酒를 즐겼다. 瑟이 있는데 그 모양은 筑에 가깝고 그것을 탄다.

고 하였다.⁽⁵⁾ 辰韓은 後에 新羅가 建國한 땅에 해당한다. 대체로 「魏志」에서 말하는, 筑에 가깝다는 瑟은, 漢代에 變形한 以後의 筑에 비슷한 瑟의 뜻으로서, 劉熙(「釋名」)나 應劭(「風俗通」)등의 所說과 같이, 細項大頭라는 정도로서, 그것에 類하는 形制의 樂器라는 것을 지적한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新羅琴의 羊耳狀의 것이 옛날에는 더욱 큰 것일 것이며, 이것을 見聞한 사람이 筑과 비슷하다고 말했는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이것을 瑟이라고 부르고, 곧 筑이라고 말하는 것은 「魏志」에 「彈之」라고 하는 것 처럼, 形態는 筑에 가깝지만 奏法은 筑과 같이 棒으로 때리지 않고, 瑟과 같이 손가락으로 타기 때문이나 아닐까. 또 瑟이라고 稱하고 있는 것은 多數의 絃을 가지고 있었음을 意味하고 이미 後漢代의 箏의 影響을 받아서 十二絃을 가졌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要컨데, 「魏志」의 所說을 통하여 辰韓의 瑟이 後의 新羅琴의 先驅를 이루는 特色을 이미 갖추고 있지는 않았을까 想像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形制의 特殊點이 中國에서 起源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마치 日本의 和琴(야마도고도)이 가지고 있는 여섯개의 돌출한 裝飾兼用的 緒留처럼 辰韓의 民俗趣味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겠다.

正倉院의 新羅琴의 尾端에 있는 羊耳狀의 表裏側面등을 자세히 살펴보면 중에, 문득 聯想되는 것이 있다. 그 形態는 韓國近海에도 棲息한다고 하는 撞木鯊(雙髻鯊 Sphyrna zygoera)의 吻頭와 酷似하기 때문에, 或 이것을 조각한 것이나 아닐까하는 臆說이다. 이것을 樂器의 形態의 模倣呢로서 說明될 수 있다면 興味가 있지만, 단순한 空想에 지나지 않는지도

(4) 「釋名」에 말하기를 「筑以竹鼓之也」。如箏細項」

(5) 「魏志」를 담습한 餘他の 史籍에는 다음과 같이 記錄되어 있다. 「後漢書」東夷傳에 이르기를 「辰韓…風俗은 歌舞飲酒를 좋아하고, 瑟을 탄다」 「晉書」辰韓傳에 말하기를 「그 風俗은 馬韓에 비슷하며…춤을 좋아하고, 瑟을 잘 탄다. 瑟은 筑에 近似하다.」

모르겠다.

「魏志」의 辰韓의 瑟에 대한 記事內容은, 「新羅古記」의 伽耶琴의 記事內容의 時代보다도 300년도 이전의 일이다. 新羅人이 辰韓 以來의 瑟을 繼承하고, 이것을 新羅의 民族樂器로 하여, 日本에 傳했던 것이 新羅琴이라면 대단히 說明하기 쉽지만, 「新羅古記」에 따르면, 伽耶로부터 그것을 梁陳間에, 처음으로 新羅에 傳했다고 하는데에 있어서는, 辰韓의 瑟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辰韓의 瑟과 伽耶琴과의 사이에는 무엇인가 關係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魏志」에 따르면, 三韓의 一國인 弁辰——弁韓이라고도 한다. 後의 伽耶에 해당한다——은 辰韓과 雜居하고 있었다고 보기때문에 辰韓의 瑟은 弁辰의 사람들에게도 알려졌을 것이다. 따라서 「新羅古記」의 所說과 같이, 新羅는 伽耶에서 伽耶琴을 傳承하였다는 說을 認定한다면, 辰韓의 瑟은 처음에 伽耶에 전해지고, 伽耶에서 大成하여, 그곳에서 만들어진 樂曲과 함께 新羅에 들어가서 賞讚받은 것으로, 伽耶 滅亡의 悲劇을 좇아서, 嘉實王代의 發明이란 傳說이 생긴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으리라. 하나의 解釋으로 내어 놓는다.

이 樂器의 考古學의 資料로서는, 韓國 서울中央博物館에 樂人士偶 二軀가 있는데, 簡單하지만 이 악기의 特色이 잘 表現되어 있다. 正倉院의 遺物은 두가지가 모두 槽의 한쪽 옆에 懸緒를 매는 두개의 구멍이 있고(지금의 懸緒는 後에 補完한 것이다.) 奏者는 이 樂器를 목에 걸고서 彈奏할 수 있게끔 고안된 것이다. 그렇다면, 立奏도 可能하고, 틀림없이 和琴의 立奏도 이것과 關係가 있을 것이다.

新羅琴은, 日本에 있어서는 「承平目錄」에 記載된 以後에는 세상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고 그 後 얼마되지 않아서 없어지고 말았다. 이 樂器의 名手라고 하여 歷史上 이름을 남긴 사람으로는 新羅人 沙良眞熊⁽⁶⁾이 있는데, 嵯峨, 淳和, 仁明 三帝代(서기 809年~822年)에 活躍하였다. 韓國에 있어서는 今日에 이르기까지, 이 樂器가 伽耶琴이란 이름아래 살아있는 것은 上記한 바와 같지만, 民間에서 使用되고 있는 羊耳頭가 없고, 오히려 뒷판을 가지고 있는 伽耶琴은 어느 代부터 變形되었는지 알려지지 않았다.

以上, 古型 新羅琴의 特色으로 槽에 뒷판을 붙이지 않고, 尾端에 羊耳狀을 가진 十二絃의 樂器의 起源은 正倉院의 遺物이나 韓國의 李朝雅樂所에 전하는 古型 伽耶琴과 漢 以來의 箏, 瑟, 여기에 「三國史記」「魏志」등의 所說을 參酌하여 考察해 보면, 要컨대는 漢文化의 浸潤에 의하여 漢의 箏箏의 制度을 배우고, 여기에 民族의 特徵을 加하여, 改制한 것이 辰韓의 瑟이 되었고, 다시 轉轉하여 最後에는 新羅琴이 된 것이며, 絃數의 十二는 분명히 漢 魏 以來의 箏의 絃制에서 影響받은 것이라고 認定해도 좋을 것이다.

(6) 「文德實錄」(三)에 말하기를 「嘉祥三年十一月己卯, 治部大輔, 與世朝臣書主卒하다. 新羅人, 沙良眞 熊新羅琴을 잘타고, 書主에게 배워서 傳習한 뒤 마침내 秘道를 얻었다.